

'감독 경질' 맨유, 번리와 비겨... '사령탑 교체' 첼시는 패배

등록 2026.01.08 09:41:58



[번리=AP/뉴스시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임시 사령탑인 대런 플레처. 2026.01.07.

[서울=뉴스시스] 김진엽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후빙 아모림 감독과 결별하는 승부수에도 웃지 못했다.

맨유는 8일(한국 시간)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번리와의 2025~2026시즌 EPL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이날 승점 1 추가로 맨유는 8승8무5패(승점 32)로 7위에 머물렀다.

번리는 3승4무14패(승점 13)로 19위에 그쳤다.

맨유는 지난 5일 아모림 감독과 결별했다.

아모림 감독은 성적 부진과 수뇌부의 갈등 등으로 부임 14개월 만에 팀을 떠나게 됐다.

빈자리는 18세 이하(U-18) 팀을 지휘하는 대런 플레처 코치가 임시로 채웠지만 승리까지 닿지는 못했다.

맨유는 전반 13분 만에 에이든 헤븐의 자책골로 어려운 출발을 보였다.

다행히 후반 5분, 후반 15분에 나온 벤자민 세슈코의 연속골로 역전에 성공했다.

다만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다.

후반 21분 제이든 앤서니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이후 양 팀은 결승골을 위해 분투했지만,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번리=AP/뉴스시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의 리엄 로즈니어 신임 사령탑. 2026.01.07.

사령탑을 완전히 바꾼 '라이벌' 첼시는 런던 더비에서 풀럼에 1-2로 패배했다.

첼시는 2일 엔초 마레스카 감독과 작별한 뒤, '젊은 피' 리엄 로즈니어 감독을 선임했다.

로즈니어 감독은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스트라스부르를 성공적으로 이끈 1984년생의 젊은 지도자다.

다만 로즈니어 감독은 풀럼전 준비 시간이 부족하던 이유로 테크니컬 에리어 대신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임시 사령탑인 칼럼 맥팔레인이 풀럼전을 지휘했는데, 승리까지 닿진 못했다.

첼시는 전반 22분 측면 수비수 마크 쿠쿠렐라가 퇴장당하는 변수를 맞았다.

후반 10분 라울 히메네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7분 리암 델랍의 득점으로 승부의 균형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후반 36분 해리 윌슨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무릎을 꿇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